

##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지표와의 관계

-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 50%대까지 이르렀으나, 그 뒤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20%대까지 떨어짐.
- 반면 진학률은 2017년에 30.9%로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40%대까지 오름.
- 진로 미결정 비율은 지난 13년 동안 8%대에서 20% 후반대로 꾸준히 상승함.
- 대졸자 취업률과는 달리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은 경기 그 자체보다는 정부의 고교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취업'뿐만 아니라 '동일 전공 분야의 진학'도 직업계고의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를 확장해야 할 것임.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미결정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

### 01 분석의 필요성과 분석 방법

| 직업계고 취업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직업계고의 졸업 후 진로(취업, 진학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직업계고 취업률과 경기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2010년 교육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이후 특성화고는 '취업에 강한 명품 직업학교'로 육성되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직업계고는 취업을 중요한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의 빠른 변화와 학생의 교육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직업계고의 신입생 총원률이 낮아지고 졸업 후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직업계고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고학력 사회의 부조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합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청년 대부분이 대졸자인 상황에서 소수인 고졸자의 취업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음.
- 이에 직업계고의 졸업 후 진로(취업, 진학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직업계고 취업률과 경기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직업계고의 취업 활성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통계청의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자료

- 직업계고의 졸업 후 상황(취업, 진학 등)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학교·학과별 자료(2008~2010년)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 학과별 학급수, 학생 수, 졸업 후 상황 자료(2011~2021년)
  - 직업계고 취업률은 2008~2010년에 전문계고, 2011~2019년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020~2021년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으로 분류됨.
  - 분석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직업계고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만 한정하고 일반고 직업반은 제외함.



각주

1) 대졸자 취업률은 연도별로 취업자 인정기준,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어 단순 연간 비교에 한계가 있는 2008-2009년은 제외함.

각주

2) 경기종합지수는 생산, 소비, 고용, 금융, 무역, 투자 등 경제부문별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기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한 경기지표임. 경기 변화를 예측, 반영하는 지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함.

3) 경기지표 간 비교를 위해 최저임금의 변화를 2015년을 100으로 가정하고 지수로 환산하였음. 이는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기준년을 설정하고 현재 2015년 기준으로 경기종합지수 등을 제시함에 따름.

각주

4) 2018, 2019년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음.

주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 대졸자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학제별 졸업 현황 자료(2010~2020)<sup>1)</sup>
  - 2010년 취업자: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2011~2020년 취업자: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칭(사)업자 + 프리랜서
- 경기지표: 통계청의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자료
  - 취업률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경기지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기지표로는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sup>2)</sup> 중 동행지수(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지수)를 활용함. 경기종합지수는 월별 변동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연 단위로는 제공하지 않아, 연 단위값을 제공하는 하위 요인들을 활용함.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주요 경제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설비투자지수, 그리고 고용과 관계가 깊은 지표로 지적된 최저임금지수<sup>3)</sup>를 변수로 설정함.
  - 추가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비율이 높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지수를 선정함.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Spearsman 상관분석

- 직업계고 및 대졸자 취업률과 경기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함.
  -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Pearson 상관분석은 표본 크기, 표본의 정규성에 대한 제한이 있음. 사회과학 연구에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를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본 연구의 최대 표본 크기는 12(2010년~2021년)이므로, 비모수 상관분석인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함.
- 교육부의 직업계고 취업률 산식은 3가지 버전으로 변경되어 취업률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움.<sup>4)</sup>
  - 단순취업률(2008~2010년) = 취업자/졸업자 × 100
  - 제외인정 취업률(2011~2017년) = 취업자/(졸업자-제외인정자) × 100
  - 진학자 제외 취업률(2020~2021년)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제외인정자) × 100
- 직업계고 취업률은 산식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2021년 취업률을 단순 취업률로 계산하면 증가하였으나 진학자 제외 취업률로 계산하면 감소하였음.
  - 이에 취업률을 단순 취업률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표 1〉 2008-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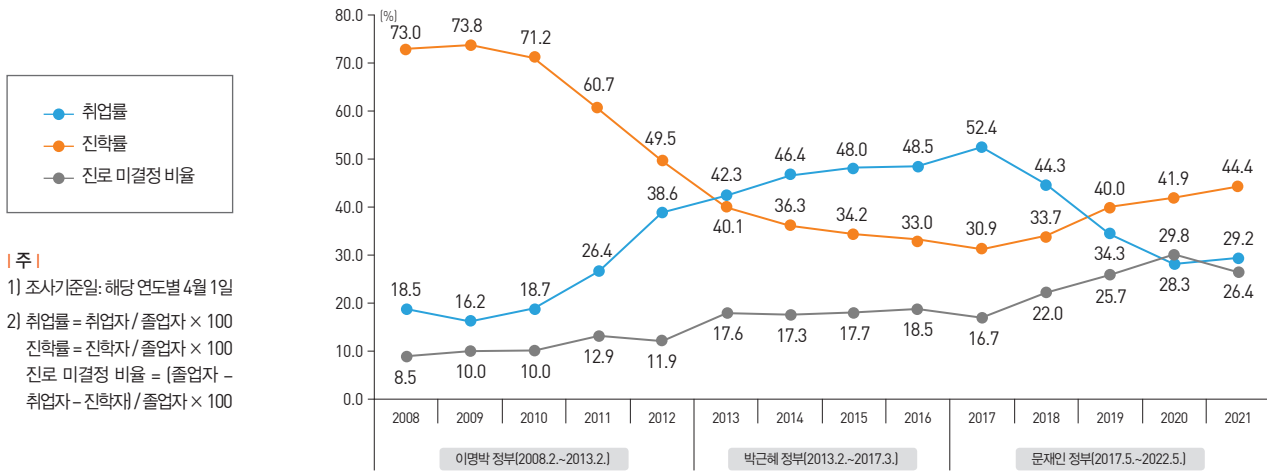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순 취업률	18.5	16.2	18.7	26.4	38.6	42.3	46.4	48.0	48.5	52.4	44.3	34.3	28.3	29.2
제외인정 취업률	18.6	16.3	18.8	26.7	38.9	42.6	46.7	48.2	48.7	52.6	44.5	34.6	28.9	29.9
진학자 제외 취업률	70.0	63.3	66.4	68.9	77.6	71.3	73.4	73.4	73.0	76.3	67.3	57.9	50.4	54.8

(단위: %)

02 직업계고의 졸업 후 진로 동향

-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까지 취업률이 상승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20%대까지 하락함. 반면 진학률은 40%대까지, 진로 미결정 비율은 20%대까지 상승함.
- 직업계고 취업률은 2008년에 18.5%였으나 2010년 교육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는 하락하는 추세임.
- 직업계고 진학률은 취업률과 반대로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30.9%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는 상승하는 추세임.

-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진로 미결정 비율은 2008년 8.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20%를 넘었고 2020년에는 29.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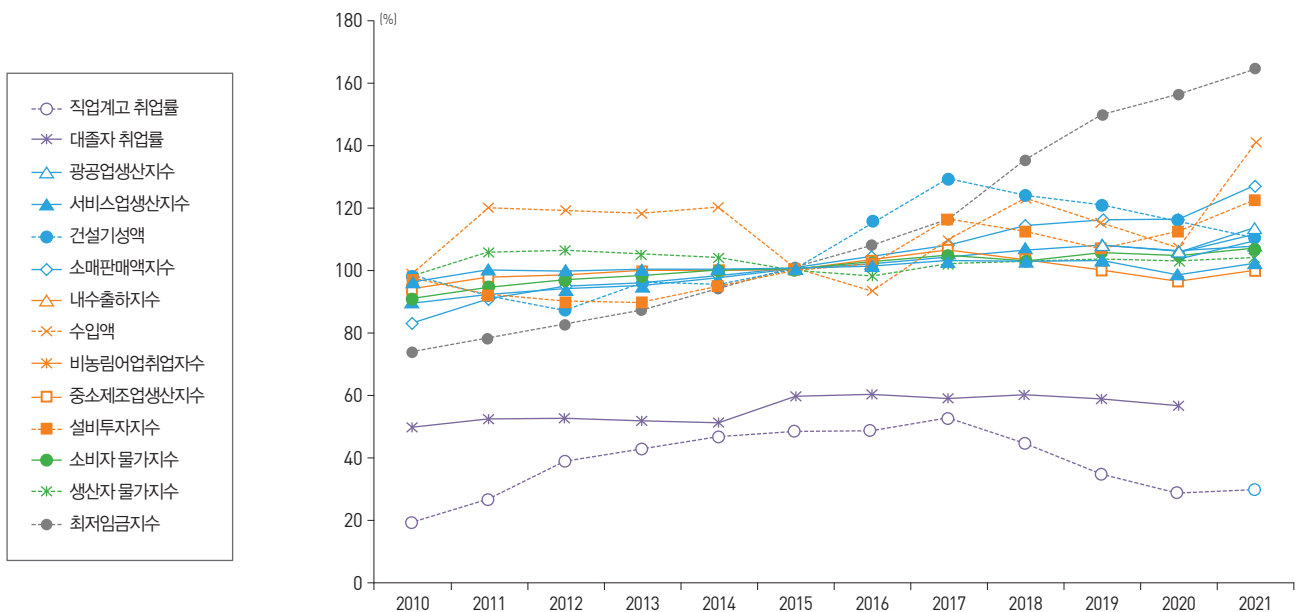
주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2)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100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진로 미결정 비율 = (졸업자 - 취업자 - 진학자) / 졸업자 × 100

[그림 1] 2008-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 진학률, 진로 미결정 비율

### 03 직업계고 취업률과 경기지표와의 관계

대졸자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음.

- 대졸자 취업률은 대부분의 경기지표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기지표가 좋을수록 대졸자 취업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대졸자 취업률은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중소기업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최저임금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 그에 반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음.
  - 직업계고 취업률은 중소기업생산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다른 경기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낮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음.



[그림 2] 직업계고 취업률 및 대졸자 취업률과 경기지표

〈표 2〉 직업계고 취업률 및 대졸자 취업률과 경기지표 간의 상관관계

구분	직업계고	대졸자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광공업 생산지수	0.179	0.556
	서비스업 생산지수	0.244	0.691*
	건설기성액	0.336	0.636*
	소매 판매액지수	0.175	0.645*
	내수 출하지수	0.539	0.747**
	수입액	-0.147	-0.209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0.224	0.691**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0.832**	0.764*	
설비투자지수	0.242	0.702**	
소비자물가지수	0.175	0.645**	
생산자물가지수	-0.343	-0.427	
최저임금지수	0.175	0.645*	

주 |  
 1) \*p < 0.5, \*\*p < .01.  
 2) 직업계고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100  
 3) 대졸자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100  
 4) 비교를 위해 건설기성액,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최저임금은 2015년을 100으로 가정하고 지수 환산하여 그래프에 제시함. 이는 통계청의 2015년 기준년을 따른 것임.

### 04 시사점

- 직업계고 취업률이 하락한 반면,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어,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요구가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으로도 확장됨. 이는 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중등 직업교육에서 기초 학습과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기초와 맞물려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동일 전공분야의 진학’도 직업계고의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학생의 요구에 맞게 졸업 후 진로를 확장해야 할 것임.
-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진로 미결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진로 목표와 요구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보다는 정부의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짐.
  - 직업계고 취업률이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는 2018년부터 감소하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함.
  - 아울러 직업계고 취업률이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민간에서 고졸 채용에 관한 요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좋은 고졸 일자리’ 부족, 고졸자의 사회 정착 및 경력개발의 어려움 등은 직업계고 취업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그러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서 고졸자 취업 지원에 비해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 정책은 부족했음. 따라서 앞으로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고졸 취업 질 제고와 고졸자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고졸 취업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안 재 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김 세 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